

# 한국불교유산 세계로 성큼

##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한글역 완간 기념 봉정

원효 이상 지눌 휴정 스님 등 한국 불교인물의 저술 중 정수(精髓)만을 추려 한글화한 한국전통사상서가 완간됐다. 영역 작업도 동시 진행 중이었던 책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내내 중 다시 영역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12일 조계사에서 한국전통사상서 한글역 완간 기념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前 간행위원장 지관 스님(前 총무원장), 前 간행위 사무처장 승원 스님(前 기획실장)을 비롯해 유인촌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사업이 시작되던 조계종 제32대 집행부 교역직 스님과 정부인사들도 참석했다.

前 간행위원장 지관 스님은 간행사에서 유인촌 前 장관, 조재희 前 총무실장 등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

하며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관 스님은 “금번 번역사업은 불교문화번역의 오래된 전범인 다자번역전통을 원칙으로 수행했다”면서 “오늘 완간된 국역 13권에 이어 내년에 영역 13권이 모두 완간돼 한국불교 1700년의 전통유산이 지구촌 곳곳에 유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간행위원장 자승 스님은 완간사에서 “이번 완간은 1700년 한국불교 사상과 수행 전통을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가는 중차대한 노력의 한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전통사상서》속에서 조계종 집행부의 원력을 확인하고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자성과 해신의 결사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과(사진 좌) 자승 스님이 함께 한국전통사상서를 봉정하고 있다.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사업은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해 《한국불교전서》 14책에 수록된 한국 고승 등 151인의 319종 문집을 90여 종으로 간추려 편찬한 것이다.

2006년 12월 정부로부터 30억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이 사업에는

국내·외 50여 학자가 참가하고 있다. 2010년 7월까지 한글역 13권 완간이 예정됐으나 방대한 번역작업과 영역 번역자 교체 등으로 사업 진행이 미뤄져 왔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동방대학원대학, 비리 의혹 보도에 반발

조선일보가 동방대학원대학의 경찰청 수사를 보도한 가운데 학교측이 음해성 제보에 의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7월 14일자 제10면 보도에서 동방대학원대학이 재정이 파탄 상태이며 교수와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교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9억원대 빌라를 매입하고, 이들의 식당을 차려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 대학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수들에게 1인당 1000~500만원씩 돈을 받아왔고 교수들이 직접 수강생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청과 학교측 관계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방대학원대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학교측은 “경찰청 내사는 사실이나 음해성 제보이며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도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이나는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 불교 지명 변경, 예방과 조치 필요

최근 정부의 새 도로명 주소 개편 작업으로 불교식 지명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를 두고 적극적인 예방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부루나의 불자들은 박호석 법사가 올린 기고문을 보고, 개신교의 적극적·조직적 활동을 견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 법사는 기고문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의 무등산 입구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광주 의 자람, 중심사가 있다. 그래서 광주지하철공사는 이곳을 지나 는 역사 이름을 ‘중심사입구역’으로 명명했다. 그런데 지하철 개통 이후 개신교를 믿는 주민들의 반대로 ‘중심사·학동입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아직도 중심사를 빼야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으니 머지않아서 반쪽 이름마저도 잃을지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부처님 법에서 나갔다는 사전적 의미까지 하는게 좋을 듯”이라고 말했다.

광주 중심사 관계자도 댓글을 달았다. 그는 “광주 지하철 개통 당시 ‘중심사입구역’이 원인이었으나 기독교계의 엄청난 반발로 재심의했고,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상정이 돼 9:8로 ‘중심사입구역’으로 간신히 통과됐 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도록 엄청난 민원을 계속 넣어서 역명변경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 다. 시민단체의 중재로 ‘학동·중심사입구역’으로 변경됐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서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습시다”라고 말 했다.

불교계는 이러한 문제에 보다 설득력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C씨는 “불교식 지명이 바뀌니까 나신다는 것 보단 지명이란 것이 그 역사성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산물임을 근거로 부적절한 지명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중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 어 불교이긴 불교식 지명을 지켜야 한다는 건 불자이외의 공감을 받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씨는 “이런 것을 보면 한국기독교교도(천주교 개신교)들이 얼마나 역사를 기독교식으로 성역화 하는데 연구를 깊게 했는지 짐작이 간다. 불교는 시급히 한글화 작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왕이면 모든 국어는

## 총무원 ‘나 몰라라’ 고운사 ‘내꺼’

### 낙단보 불전함 갈등

낙단보 불전함 갈등의 중재자로서 밝혔던 총무원이 대문사와 고운사의 협력이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문사와 고운사는 최근 낙단보 불전함의 관리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총무원 문화부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종단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6월 22일자 제841호 보도)

그러나 문화부는 최근 낙단보 불전함은 종단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화부 국장묘청 스님은 “낙단보 마애불은 국가문화재이고, 발굴 장소가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불전함의 관리 주체를 종단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문사와 고운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지 종단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최근 양쪽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공사 업체나 지자체도 이의제기가 없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운사(주지 호성)는 교구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전

함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지 호성 스님은 불전함을 놓고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낙단보 불전함은 고운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성 스님은 “교구관할이기 때문에 교구장으로서 의무가 있다. 교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단 발굴조사가 우선이니 당분간 지자체도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됐기 때문 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을 이유로 해원사에 계교장을 보내며 자진철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임대 보증금 수준의 보상금으로는 주변에 이주할만한 적당한 곳을 물색하지 못한 해원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에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데고종 총무원도 LH공사에 공문을 보내며 사찰이전 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LH공사는 7월 11일 결국 행정대집행을 단행했고, 해원 스님은 4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저지에 나섰으나 여부족이었다.

해원 스님은 “법의 문제뿐만 불

## 재개발지역 내 사찰 지원강화 시급

### 성남 해원사 강제집행 철거

철거 위기에 놓인 재개발 예정지 사찰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성남시 단대동에 위치한 태고종 소속 사찰 해원사 주지 해원 스님은 최근 인근 필지방에서 기거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신행과 포교 및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 활동해온 해원사가 입주해 있던 상가건물이 성남 단대동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됐기 때문 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을 이유로 해원사에 계교장을 보내며 자진철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임대 보증금 수준의 보상금으로는 주변에 이주할만한 적당한 곳을 물색하지 못한 해원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에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데고종 총무원도 LH공사에 공문을 보내며 사찰이전 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LH공사는 7월 11일 결국 행정대집행을 단행했고, 해원 스님은 4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저지에 나섰으나 여부족이었다.

해원 스님은 “법의 문제뿐만 불

것이 아니라 종교시설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원과 조율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지원이 스님들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6월 28일에도 수락산 소재 대암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 원상복구 일체 정비를 이유로 철거된 바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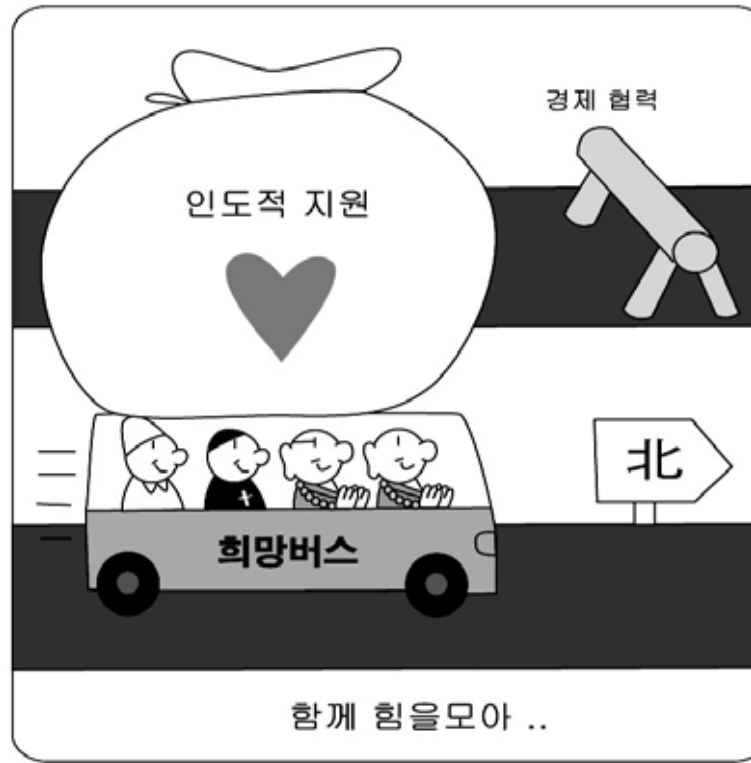
그러나 태고종은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교구나 종단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권의 침해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어도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기관에 대한 마련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대부분 사찰이 산내에 위치한 재개발로 인한 마찰은 적은 편이다. 관련 통계 등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유사 사건이 발생시 해당 사찰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법률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원 한다.

박기범 기자

## 박구원 만평



## 불국사 제2석굴암 건립 보도 해프닝

불국사가 사보 《불국회보》에 성보훼손 우려로 중단했던 제2석굴암 건립을 밝히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7월 1일자 사보 《불국회보》에 ‘제2석굴암 건립추진’ 기사를 실었다. 불국사는 이 기사에서 “문화재청과 불국사가 토한 석굴암 근처에 석굴

암과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제2석굴암(모형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박완규 《불국회보》 편집장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불국사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해명했다. 노력현 기자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불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불전함보다 낙단보 마애불 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김두관 조직국장은 “두 사찰이 마애불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마애불 보존에 더 관심을 가지면 불전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동산불교대학 39기 신입생 모집



“끝없는 열정” 동산  
신행 교육 포교 전문도량 동산

동산불교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종 수행을 통하여 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성인들의 배움의 공간입니다.

###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빈이사상, 유식사상, 불교성당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18과목
교수진	무진경 대종사 학정스님, 주명철 교수, 정영스님, 김형준 교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최중석 교수, 윤영수 교수, 김호규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김성현 교수, 모주스님, 정성준 교수, 권경희 교수, 박동 교수, 정병조 교수, 차차희 교수 외

###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학과 (180명) (토요반·목요일·토요일 각 60명) · 불교다도학과 (3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 (30명)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변경합판사진 3매	[불교학과] [9월 개강학과] 2011년 6월 27일~8월 6일 2011년 7월 1일~9월 8일 입학금 250,000원	[불교학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일) (토산반은 교재와 테이프 제공.)

### ▶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11년 8월 6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6일(화),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7일(수), 불교한문학과 9월8일(목)  
불교미술학과 9월8일(목) 개강

### ▶ 원서문의·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7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8월 3일까지

◆개강일시 : 2011년 8월 4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만영합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